

전북, 바이오·헬스케어 공모 연속 선정

원격진료-AI 의사결정-스마트 인큐베이터 통합 솔루션 개발... 병원-대학-기업 컨소시엄으로 연구역량 극대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1분기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4건의 대형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며 27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데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공모에서도 잇달아 성과를 올리며 '공모 강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 사업 발굴에 힘입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응급상황 신생아 원격진료 스마트 인큐베이터

플랫폼 개발'로, 향후 5년간 총 54.5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AI 기술과 원격진료 시스템을 접목한 혁신적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동형 경량화 인큐베이터에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신생아 응급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전북대병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전북대학교와 관련 기업 두 곳이 참여한다. △전북대병원

은 신생아중환자실 데이터셋 구축과 원격진료 통합관제실 운영을 총괄하고, △전북대학교는 AI 의사결정지원 및 예측 솔루션 개발을 맡게 된다.

△참여 기업들은 원격진료 기능을 탑재한 경량화 고정형·이동형 스마트 인큐베이터 개발, 비대면 진료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 기반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을 각각 담당한다.

이를 통해 1단계(2025~2027년)에서 원천기술 확보 및 인큐베이터 플랫폼 개발을, 2단계(2028~2029년)에서는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도내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은 영아와 산모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시군 간 의료격차와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지역 의료 취약 문제 해결과 함께, AI 및 의료기기 산업의 지역 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의 기술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민간 주도 지역창업생태계 조성 박차

6개 팀스 운영사 선정... 크립톤·스케일업 파트너스

로우파트너스·인포뱅크·MYSC·JB기술지주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6개 팀스(TIMES)운영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팀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팀스운영사가 역량 있는 창업기업에 1억 원 이상을 선투자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최대 17억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6개 운영사는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각 운영사는 10개 창업팀을 발굴해 사업모델 고도화, 투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최소 1개 팀 이상에 직접 투자한 뒤 팀스 추천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내 활동하는 팀스 운영사가 없어 기술창업기업들의 애로가 커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2년간 5개 운영사를 지원해 60개 팀을 육성하고, 이 가운데 13개 팀이 팀스에 최종 선정돼 총 44억원의 민간 투자와 121억원 규모의 정부 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팀스 도전기업을 기존 40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특화 분야도 세분화했다. K-콘텐츠·ICT, 바이오·헬스케어, 방산 분야는 유지하고, 기후테크 산업은 모빌리티·이차전지와 순환경제로 나누어 지역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최종 선정된 6개 운영사는 △K-콘텐츠·ICT 분야의 크립톤(대표 양경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스케일업 파트너스(대표 이태규) △방산 분야의 로우파트너스(대표 황태형) △모빌리티·이차전지 분야의 인포뱅크(대표 박태형) △순환경제 분야의 MYSC(대표 김정태) △기술사업화 분야의 JB기술지주(대표 지건열)이다.

프로그램 신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자치도 창업지원과(063-280-3272)에 문의하거나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팀스운영사가 도내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민간 협력을 통해 도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미주한인총연합회, 전북 산불피해 복구 성금 1000만원 기부



전북자치도의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열린 미주한인총연합회 산불피해복구성금 전달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미주한인총연합회 서정일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운데 성금을 전달했다.

미주한인총연합회(회장 서정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을 향한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미주한인총연합회의 나눔 정신과 따뜻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양호등급 달성

국민연금공단, 72개 심사 대상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 인정

국민연금공단이 29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최고 수준인 2등급(양호)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공공기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민이용시설, 건설현장, 근로자 등 안전관리가 중요한 사업과 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2024년 심사에서는 72개 대상 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2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단을 포함한 20개 기관이다.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체제를 마련하

여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이사장의 주요 관심사항인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직무별 심리진단을 통해 감정 소모가 큰 직무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활동 체계 지표에서도 과거 3년간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A등급'

전북개발공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 강화를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 1,426개 공공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

하고,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관리와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체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왔다. 공사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A등급 획득은 전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 '지오드림(Geo-Dream)' 운영기관 선정

진안·무주 지질공원, 청소년 지질교육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주관하는 무료 지질교육 프로그램 '지오드림(Geo-Dream)'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오드림"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참여형 생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지질공원의 사회공헌 실현과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강원 평화지역(고성군)과 함께 전국 2개 운영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오는 9월까지 이어지는 진안·무주 지오드림 프로그램은 전북대학교 생물학과교실과 협력해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등 관내 총 1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지질공원의 가치와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형 학습을 통해 이공계 분

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전북자치도와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양질의 지질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지질 전문기 등 관련 분야 진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 우수 지질명소의 보전과 활용 인식을 확산시켜, 지질공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과학자 등 이공계 진출을 꿈꾸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내 과학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지오드림 사업 선정을 통해 국가지질공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